

아름다운 우리 닭 저손만대에 계승을...

홍 승 갑 현인농원 대표



닭이 우리땅에 들어와 우리 선조 들과 같이
리생활한 역사가 2000여년이 되었다 한다.

이러한 우리 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때는 시보용(時報用)으로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 주었고, 또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민속놀이에 “닭싸움”으로 우리에게 볼거리를 제공 해주었을 뿐 아니라 약용(藥用)으로써 많은 아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병(病)을 고치게 하는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약용(藥用)으로써의 효능은 중국 의서(中國醫書)에서도 조선(朝鮮)의 중부닭은 약효가 우수하다는 평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가난했던 우리 과거에 농가에서 몇 마리씩 놓아 기르는 닭에서 낳은 알은 부잣집의 반찬이나 귀한 손님의 접대용으로나 쓸 만큼 귀한 물건이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알은 우리들 노년층이 어렸을 때 몇 개씩 놓아 모아 놓은 알로써 공책을 사고 학비도 조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장가들은 새 신랑이 처갓집에 가면 잡아 주던 씨암탉은 정겨운 일이라 지금도 ‘처갓집에서 씨암탉 잡아주었냐’는 말이 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우리 닭이 과거부터 “조선 닭”이라 불려 내려오다가 조국 분단의 아픔으로 남북이 갈

리면서 그 좋은 우리말 “조선” 이나 “동무” 등 순수한 우리말을 기피하였고, 급기야 닭의 품명도 토종닭으로 하려니 많은 교잡종이 토종닭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어 이를 재래닭으로 칭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의 훌륭한 유전자원 임에도 이를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세밀하고 완벽한 기록이 신통치 않아서 애석할 뿐이다.

이를 이해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짧은 글이나 마 내려오는 기록이나 민화 아니면 고화(古畵)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筆者는 조선조 말기에 화가(畵家) “변상벽”(1730~?) 이 그린 그림 “자웅장추(雌雄蔣雛)”란 그림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왜냐 하면 이 화가는 1763~1773년에 영조의 어진을 그리고 평생 100점의 당대 명현들의 초

상화를 그려 국수(國手)의 칭호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고양이” “닭”을 실물처럼 잘 그렸다고 해서 사대부들에게 “변 고양이” “변 닭” 이란 별명을 받을 정도라 했다.

이렇듯 실물을 정확히 묘사한 화가의 작품인 “자웅장추”란 그림에서 수탉의 벚이 장미 벚·맨드라미 벚 같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닭이 오관단 벚에 외형(外形)은 레그혼과 같다 하였는 바 이 그림을 보면 우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그림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긴 과정을 추정해 보면 닭이 이땅에 존재한 이후 어떤 시대는 정부의 진흥책으로 수(數)를 늘리고, 어떤 때는 조상의 제수용으로 사용하라는 어명(御名)으로 장려하였을 뿐이지 어떤 개량의 흔적을 거친 흔적이 없이 가금(家禽)



▲ 조선시대 화가 변상벽(1730~?)의 자웅장추(雌雄蔣雛)



으로써 그대로 길 들어온 것 같다.

만약 개량되었다 하면 체구나 생산능력, 야성(野性) 등이 많이 변화되었을 것인데 지금도 야성의 본성이 개량된 닭들에 비해 월등히 본질적 성질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근년에 학계의 학술적인 검증(檢證) 결과도 상당히 개량닭과 상이한 닭임을 입증(立證) 한 바 있다.

또한 재래닭과 개량닭을 동일조건(동시 부화, 사육 등)으로 일정 기간 사육후 고기 맛을 비교해 보아도 확연히 알 수 있다. 또한 두가지 알을 삶아서 아이들한테 시식을 시켜 보면 아이들은 신통하게도 우리알을 선호하는 것을 보아도 고기도 계란도 확연히 다른 것을 입증하는 바가 아니겠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와 2000여년의 생사고락(生死苦樂)을 같이한 이 작은 동물이 일본의

통치, 6·25한국전쟁, 산업적 가치 등에 밀려서 제 자리에 서지 못하고 소외(疎外)당하고 멸종(滅種)하게 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고도 우리는 후손들에게 선대(先代)의 대접을 받고 인정 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근간에는 토종닭 사육자들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항의집회를 한 적도 있었다.

그러면 이 닭은 과연 살아 남을 수 없는 것일까? 아니면 살길이 있다고 하겠는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필자는 분명히 전통 재래닭 산업이 한 자리에 꽃꽂이 설 수 있다고 장담한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이다.

외국에 있어서 아종(我種)을 보호, 육성하는 단면을 보아도 충분하다. 이는 국가의 뚜렷한 의지로 아종(我種)의 유전자원(遺傳資源)을 보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우리의 토종이 보존·유지될 수 있으며, 이 또한 차별화로 충분한 산업(產業)에서의 제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장담 할 수 있다.

또 한가지 방법으로써 우리 닭의 아름다운 색상의 유전자를 계승, 발전시켜 우리도 관상용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닭을 만들 수 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산업성은 뒤지더라도 아름다운 모양의 우리 닭을 후손 만대에 물려 줄 수 있다.

거듭 말 하거니와 이렇듯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우리의 토종을 보존 유지 계승한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차제에 정부에 건의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감 하겠다. **양계**